

## 예수의 코드는 무엇인가?

- 맹명관 / 2003. 7. 30 -

카피라이터& 마케터, (주)paradream 마케팅 고문, CEN TV 전문위원

최근 우리 사회에, 지면상에 화두처럼 자주 떠오르는 단어는 「코드」라는 말입니다. 정치권에도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에 맞는 기호나 신호에 따른 약속이 얼마나 이해되고 공감하느냐는 말이겠지요. 물론 누구나 코드가 잘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요. 상사와 코드가 맞아야 하고 후배와 코드가 맞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말도 앞선 의미와 부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코드론과 달리 교회의 코드는 그 의미나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코드가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 솔직히 말해 우리 교회에도 편을 가리고 세를 불리는데 코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코드는, 그 대상자는 세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의 곁에는 언제나 상처가 그득한 사람만이 모였습니다. 절름발이와 소경,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예수가 기진맥진하여 지쳐있을 때도 가르침을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는 받아들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회당, 집, 바닷가, 산, 언덕 등을 두루 다녔습니다. 더불어 예수는 작은 자, 특히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례로 예수가 만난 문둥병 환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3미터 반경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바람 부는 날에도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이들까지도 코드를 맞추시고 치유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 음지에 있던 과부, 어부, 세리, 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관원 삭개오의 삶과 예수님이 만나던 광경을 그려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에게 예수님은 코드를 맞추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모욕을 당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그 분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분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힘있는 자가 더 힘이 센 자와 코드를 맞추려 하고 부와 권력 있는 자에게 다가가 코드라는 명목하게 야합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교회와 목사님에게 코드를 맞추어야 하고 교단이라는 우산 밑에 안주하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천 년전 우리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의 코드는 이러했습니다. 빛이 되어 어둠 속의 백성을 비추이는 그의 사명. 지금 교회는 예수님께서서 그러하셨듯이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